

LIG House
Book

2015/12/28



전략 은 論하다

- 02 | 퀀트 Talk: 배당락 하루 전 체크리스트
- 07 | 경제 Point: 주간경제전망
- 09 | 차트 Point: (1) 2015 GDP Consensus
- 10 | 차트 Point: (2) 경기선행지표
- 11 | 차트 Point: (3) 밸류에이션

퀀트 Strategy

배당락 하루 전 체크리스트

Quantitative Analyst 엄동찬 • 02)6923-7314 • dongchan@ligstock.com

2015년 주식시장의 마지막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배당락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배당 기산일인 28일(월)까지 주식을 보유해야하며, 배당락은 29일(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배당락 전 체크해야 할 이슈들과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론 배당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론 배당락은 과거 4개 분기의 배당금과 배당락 전 거래일의 주가를 이용해 계산되는데, KOSPI는 -1.3%, KOSDAQ 스타지수는 -0.6%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기억할 점은 과거 10년간 배당락일의 KOSPI 시가가 이론 배당락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경우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유사하게, 배당락일의 KOSPI 시가는 이론 배당락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배당락일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단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6번의 경우에는 시가 대비 종가가 높게 마감했지만 그 확률이 통계적인 의미가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당락일의 KOSPI 시가가 전일 대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 가격이 늘 진입하기 좋은 가격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배당금만을 노리고 단기적인 투자를 고려중이라면, 고배당주를 배당 기산일에 사서 배당락인 다음날 되파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중 배당 외의 요인에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초가에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확률이 높으며, 높은 배당수익이 기대되는 여러 종목을 바스켓으로 매매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투자전략인만큼, 거래비용을 고려했을 경우의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종목선택 아이디어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 중 2015년 순이익이 흑자를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고 12월 배당금 기준 배당수익률이 3% 이상인 종목입니다. 다만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2014년 대비 배당금 추정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치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천종목 : 대신증권, 메리츠증권증권, 동양생명, 현대증권, 하이트진로, 기업은행, NH투자증권, 지역난방공사, DGB금융지주, 세아베스틸, 대우인터내셔널, 메리츠화재, KB금융

두 번째 종목 선택 아이디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영향으로 배당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2014년 실적을 새롭게 적용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적용했을 때 세금 부담이 높은 기업들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배당매력 뿐 아니라 배당 확대에 따른 모멘텀 발생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종목 : 대우건설, 미래에셋생명, 엔에스쇼핑, 선데이토즈, 현대리바트, 동원개발

배당락 전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

배당락 진행 일정

2015년 주식시장의 마지막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배당시즌이 다가왔다.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28일(월) 종가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9일(화)에는 배당락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자료에서는 배당 시즌에 확인해야 하는 이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KOSPI 이론 배당락은 1.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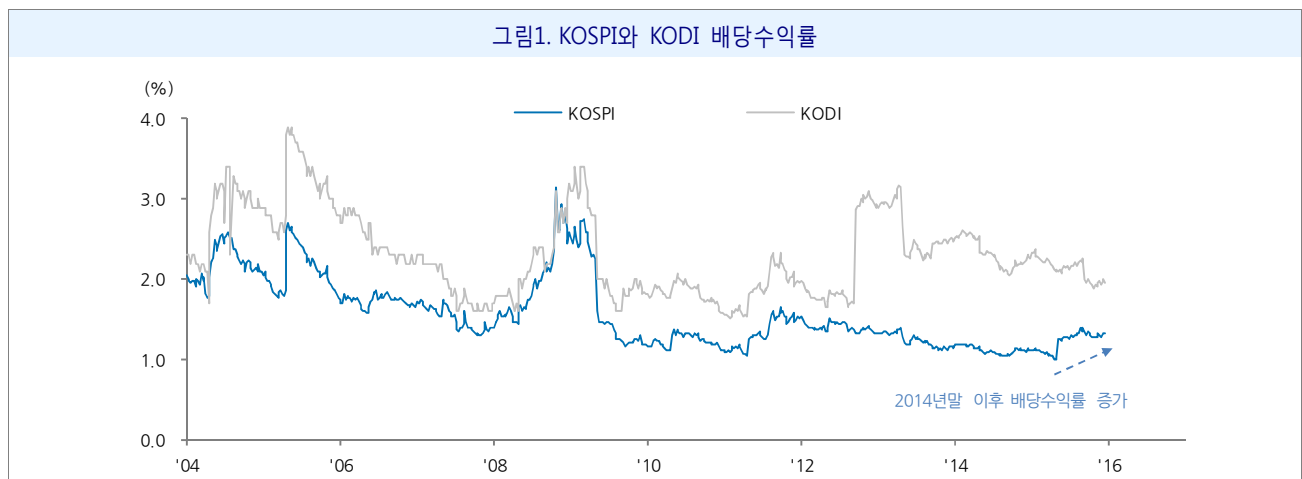
먼저 이론 배당락에 관련된 내용이다. 1998년 개정 이후 현금 배당은 주식의 기준가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배당락일(12월 29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현금 배당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현금 배당만큼 시가총액이 감소하게 된다.

한국 거래소는 이러한 수준을 반영하여 배당락일 전에 이론적인 배당락을 발표하는데,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배당금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 배당금을 이용하여 이론 배당락을 계산한다.

현재 과거 4개 분기의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 KOSPI의 배당수익률은 1.3%이다. 배당수익률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1)주가가 하락하거나, 2) 배당금이 늘어나야 하는데, 2014년부터 기업들의 배당정책이 주주친화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배당수익률 역시 상승하기 시작했다(그림1 참조).

앞서 설명한 이론 배당락 계산 방법론과 같이, 과거 4개분기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 배당수익률은 이론 배당락의 대응치로 사용된다. 현재 KOSPI와 KOSPI200의 이론 배당락은 1.3%, KOSDAQ 스타지수는 0.6% 수준이다(다음페이지 그림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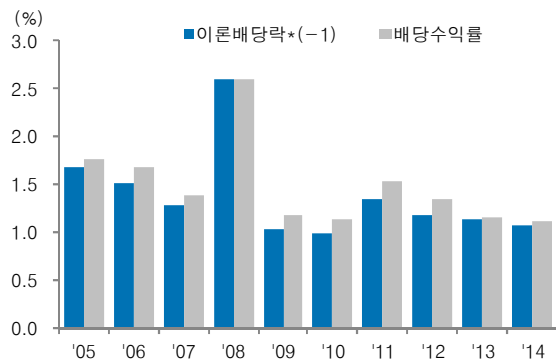
그림1. KOSPI와 KODI 배당수익률



주: 직전 4개분기의 실제 배당금과 현재 주가를 이용해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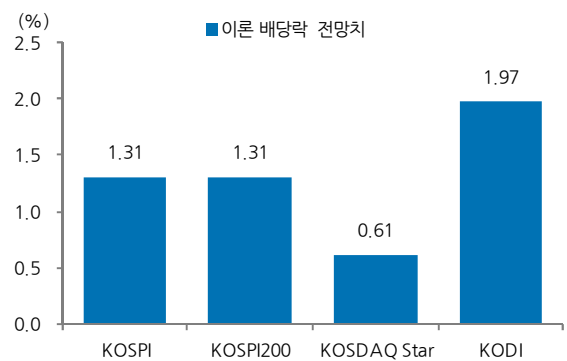
자료: KRX, LIG투자증권

그림2. KOSPI 배당수익률과 이론 배당락



자료: KRX, LIG투자증권

그림3. 주요지수 이론 배당락



주: 배당수익률을 사용하여 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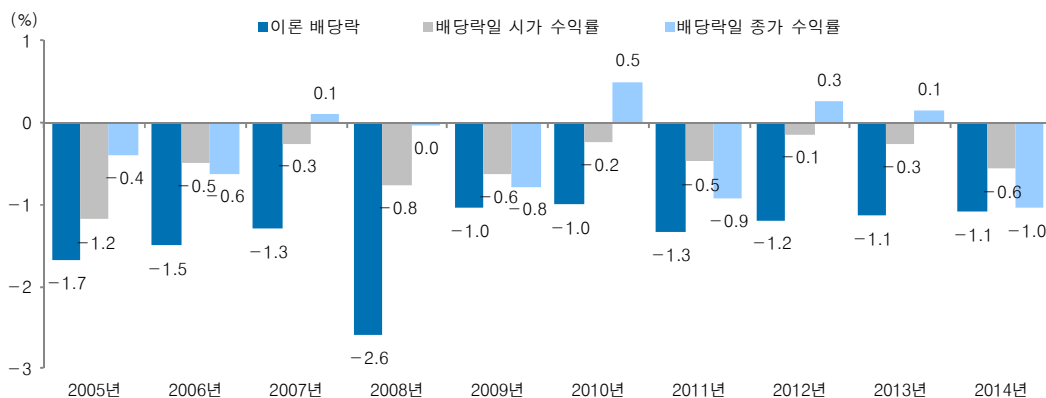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과거 10년간 이론
배당락을 하회한
경우는 없음

기준가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락일의 시초가는 전일종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KOSPI가 이론 배당락을 반영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적어도 최근 10년간의 KOSPI를 기준으로 할 때, 배당락일의 시가는 물론 종가까지도 이론 배당락을 하회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그림4 참조).

다만 배당락이 반영된 시가에 진입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높은 확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10년동안 시가 대비 종가가 높았던 경우는 6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확률적으로 50%는 넘지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4. KOSPI의 과거 이론 배당락과 배당락일 시가 및 종가 수익률



주: 시가 수익률은 (배당락일 시가 / 전일 종가) - 1, 종가 수익률은 (배당락일 종가 / 전일 종가) - 1

자료: KRX, LIG투자증권

가장 확률이 높은
단기 전략은
배당락일 시가 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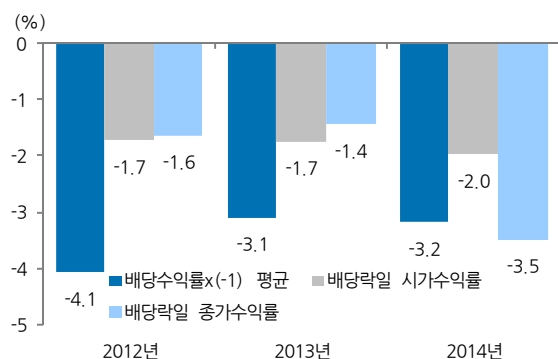
그렇다면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배당 기준일에 매수하여 다음 날 매도하는 전략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거 3년간의 12월 배당금 기준 배당수익률 상위 25개 기업의 배당락일 수익률과 배당수익률을 비교해보았다.

결론을 먼저 언급하면, 확률적으로 가장 성공확률이 높은 전략은 배당 기준일에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여 배당락일 시초가에 차익실현하는 전략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의 시초 가격이 이론적인 배당락보다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즉, 배당락을 맞더라도 배당금을 받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배당락일 증가는 시가와 달리 펀더멘털이나, 대외 이슈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2012년, 2013년과 같이 배당락일 증가가 시초가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2014년과 같이 증가가 시가에 비해 낮은 수준까지 내려간다면 배당금으로 얻는 수익보다 추가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그림5,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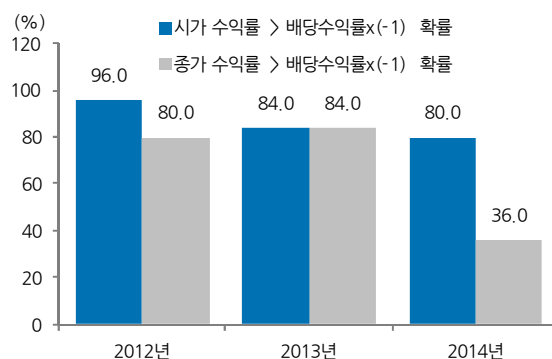
다만 이러한 단기 전략의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1.2% 수준으로 거래비용까지 감안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종목별로 배당락에 대한 반영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종목을 바스켓으로 매수해 오차를 줄여야 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림5. 배당수익률 상위 25개 종목의 배당락일 수익률



자료: FnGuide, LIG투자증권

그림6. 배당수익률 상위 25개 종목의 배당락일 상승 확률



자료: FnGuide, LIG투자증권

종목 선택 아이디어
1) 배당수익률 상위
종목

올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가 처음 도입되는 시기이다. 세법 개정과 함께 2014년 말부터 기업들의 배당 정책 역시 주주친화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인 개정 세법의 영향으로 배당금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배당락을 앞두고 두 가지 아이디어로 관심 종목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군이다. 종목 선정 아이디어는 1)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종목 중, 2) 2015년 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3) 중간 배당을 제외한 12월 배당금 기준의 배당수익률이 3% 이상인 13개 종목군이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군에는 금융 업종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배당금에 비해 배당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치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배당금이 추정치를 하회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다음 페이지 표1 참조).

표1. 배당수익률 상위 종목

코드	종목	시가총액 (억원)	12월 배당금 추정치(원)	배당수익률 (%)	2014년 배당금(원)	2013년 배당금(원)	2015년 순이익(억원)	2015년 EPS 증가율(%)
A003540	대신증권	9,298	600	4.69	250	200	1,194	173.3
A008560	메리츠증권증권	21,107	193	4.53	145	70	3,017	70.4
A082640	동양생명	12,909	540	4.50	550	200	1,830	11.3
A003450	현대증권	15,687	277	4.17	50	0	2,707	624.0
A000080	하이트진로	17,117	967	4.01	1,000	1,100	497	135.0
A024110	기업은행	74,001	504	3.79	430	330	11,276	9.1
A005940	NH투자증권	31,464	383	3.58	160	50	2,925	162.3
A071320	지역난방공사	7,109	2,188	3.56	2,110	2,990	844	27.4
A139130	DGB금융지주	17,412	355	3.45	320	280	3,155	13.8
A001430	세아베스틸	10,902	1,015	3.34	1,000	900	1,797	45.3
A047050	대우인터내셔널	19,758	568	3.27	500	300	1,960	6.2
A000060	메리츠화재	16,848	501	3.15	380	320	1,750	47.6
A105560	KB금융	131,553	1,052	3.09	780	500	16,328	16.6

주: 12월 배당금 추정치는 2015년 DPS 컨센서스에서 2015년 중간배당을 차감하여 계산

자료: FnGuide,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종목 선택 아이디어
2) 배당금 확대 예상
종목

두 번째 아이디어는 2014년까지는 배당금이 없거나 많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실시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영향으로 배당금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이다. 2014년 실적을 기준 기준으로 과세대상 비중이 높으면서, 2015년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기업군을 선정했다. 해당 기업군은 배당 매력도 존재하지만, 배당금 확대에 인한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종목군이다(표2 참조).

표2. 배당금 확대 가능성 높은 기업

코드	종목	증가	시가총액 (억원)	2014년 순이익(억원)	순이익 대비 과세비중(%)	2015년 EPS(원)	배당성향 10% 가정시 배당금	배당성향 20% 가정시 배당금
A047040	대우건설	5,830	27,348	1,073	30	493	49.32 (0.85)	98.65 (1.69)
A085620	미래에셋생명	5,110	7,767	710	30	659	65.89 (1.29)	131.77 (2.58)
A138250	엔에스쇼핑	192,000	6,554	708	25	21,131	2113.07 (1.10)	4226.14 (2.20)
A123420	선데이토즈	11,300	3,870	485	24	1,538	153.78 (1.36)	307.56 (2.72)
A079430	현대리바트	34,500	7,423	229	24	1,912	191.18 (0.55)	382.35 (1.11)
A013120	동원개발	4,030	4,032	590	22	800	79.96 (1.98)	159.93 (3.97)

주: 괄호안의 수치는 배당금 가정하의 배당수익률 전망치(%)

자료: FnGuide,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경제 Point: 주간 경제전망

Economist 김유겸 • 02)6923-7332 • yukyum@ligstock.com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고, 국내경기 회복에 대한 관심 증가할 전망. 일본은 추가 금융완화 기대감이 낮아질 전망

경제공작회의 이후
중국 우려감을
줄어듦 전망

경제공작회의에서 당국의 정책의지를 확인해주어 중국 우려감이 줄어들 전망. 중국은 12월 18~21일에 열린 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완화정책의 강화 등을 피력하며 강한 경기친화적인 정책의지를 재확인시켜 줌. 1월 1일 발표되는 중국의 12월 기업심리(PMI)는 전월대비 호전되며 경기 우려감을 줄여줄 전망

국내 산업활동동향,
경기 회복세 시사
전망

국내 산업활동동향, 국내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줄 전망. 30일 발표되는 11월 산업활동동향은 소비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전망. 정부가 2016년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국내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가할 전망. 그러나 12월 수출입지표(1일)의 부진 등으로 경제 전반적인 디플레 심리를 극복하지는 못할 전망

일본, 4월 이전
정책시행 전망 유지
미국, 경기긍정론
지속

일본은 11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전월 호조로 다소 둔화되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추가 금융완화 기대감을 낮출 전망. 그러나 시장은 인플레이 유발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압력 등으로 4월 이전 정책시행에 대한 전망을 유지할 전망. 미국은 소비심리 개선, 주택가격 상승세 등으로 경기긍정론이 지속될 전망

12월 5주 경제일정 및 코멘트(12/28~1/3)

날짜	이벤트	전월(기)	전망치
28(월)	일본, 11월 산업생산 (잠정, %, MoM)	1.4	
	일본, 11월 소매판매 (%, MoM)	1.2	-1.4
28~31	국내, 11월 할인점 매출 (%, YoY)	-0.5	
	국내, 11월 백화점 매출 (%, YoY)	11.4	-
	중국, 11월 경기선행지수	98.36	-
29(화)	미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	90.4	93.8
	미국, 10월 S&P/CS 주택가격 (%, MoM)	0.61	0.55
30(수)	미국, 11월 미결주택매매 (%, MoM)	0.2	0.6
	유로존, 11월 통화공급 M3 (%, YoY)	5.3	5.2
	국내, 11월 산업생산 (%, YoY)	1.5	1.8
	국내, 11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0.2	-
	국내, 1월 제조업 BSI (한국은행)	69	-
	국내, 1월 비제조업 BSI (한국은행)	71	-
31(목)	국내, 12월 소비자물가 (%, YoY)	1.0	1.1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12월 5주 경제일정 및 코멘트(12/28~1/3) (Con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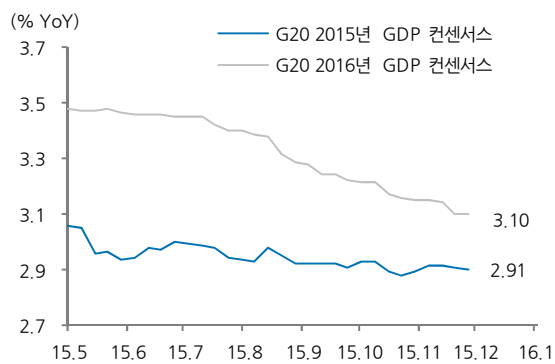
날짜	이벤트	전월(기)	전망치
1(금)	중국, 12월 NBS 제조업 PMI	49.6	49.8
	중국, 12월 NBS 비제조업 PMI	53.6	-
	국내, 12월 수출 (% YoY)	-4.8	-11.4
	국내, 12월 수입 (% YoY)	-17.6	-18.4
	국내, 12월 무역수지 (억\$)	103.2	82.2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차트 Point: (1) Global 2015 · 2016 GDP Consen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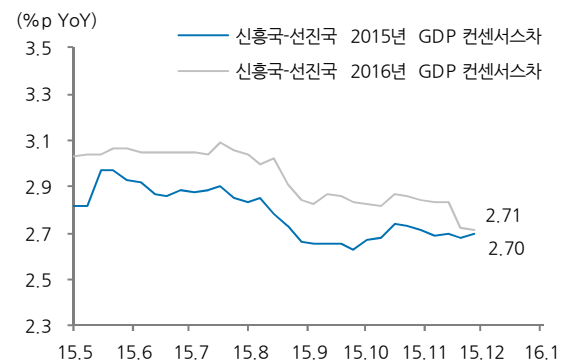
- 러시아의 2016년 GDP 컨센서스가 전주대비 하향 조정됨(0.0%→-0.2%). 이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와 국제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 따른 결과이며, 이를 반영하여 세계은행 또한 지난 18일 러시아의 '16년 및 '17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

2015 · 2016년 G20 GDP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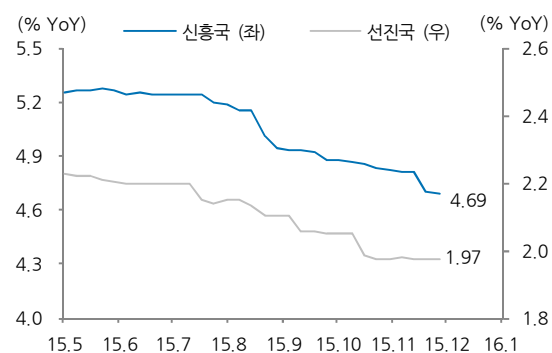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5 · 2016년 선진국, 신흥국 GDP 컨센서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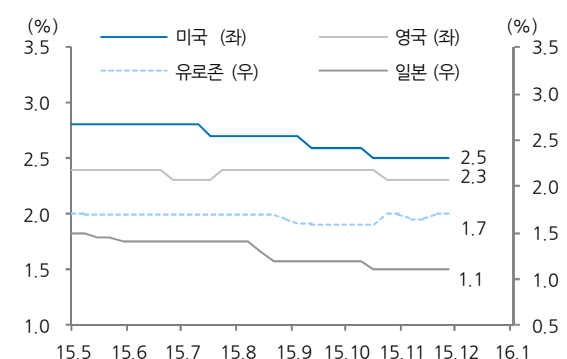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선진국과 신흥국의 2016년 GDP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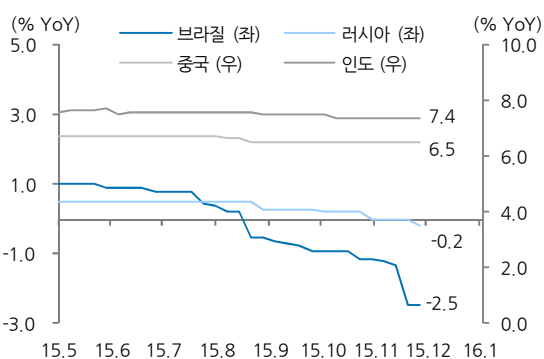
주요 선진국의 2016년 GDP 컨센서스



주: 미국·일본 성장률은 Qo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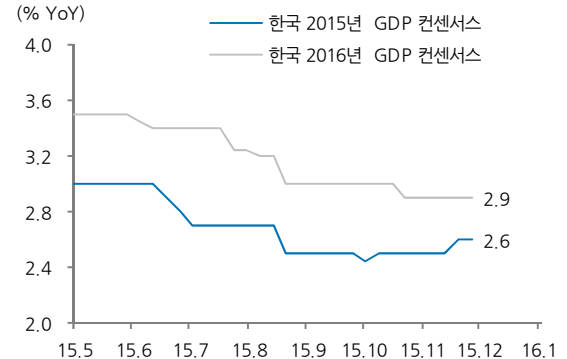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요 신흥국의 2016년 GDP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5 · 2016년 한국 GDP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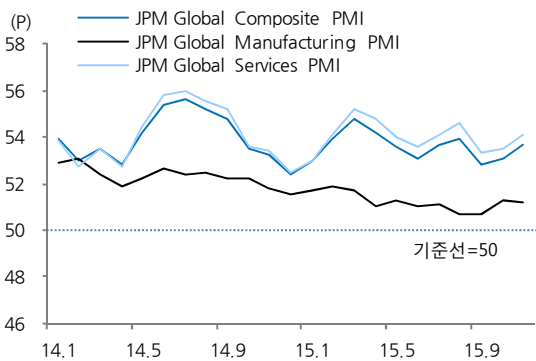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차트 Point: (2) 경기선행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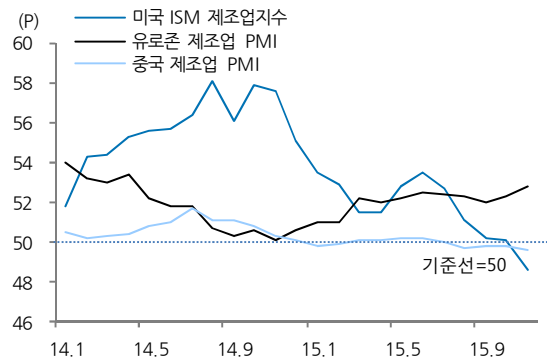
- 한국의 장단기 금리차는 전주 대비 하락.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는 등 거시경제 불안감이 두드러진 영향으로 장기금리가 더 크게 하락. 미국의 금리 인상 후 가계부채 문제, 한계기업 구조조정 이슈 등의 국가경제적 불안이 산재해 있는 바, 당분간 국내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 될 것으로 보임

글로벌 제조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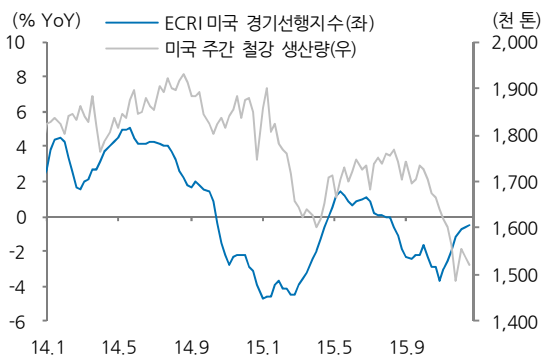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요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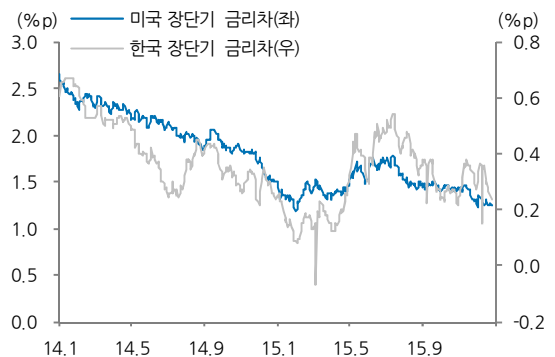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경기선행지수와 주간 철강 생산량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과 한국의 장단기 금리차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유로존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자료: Bloomberg,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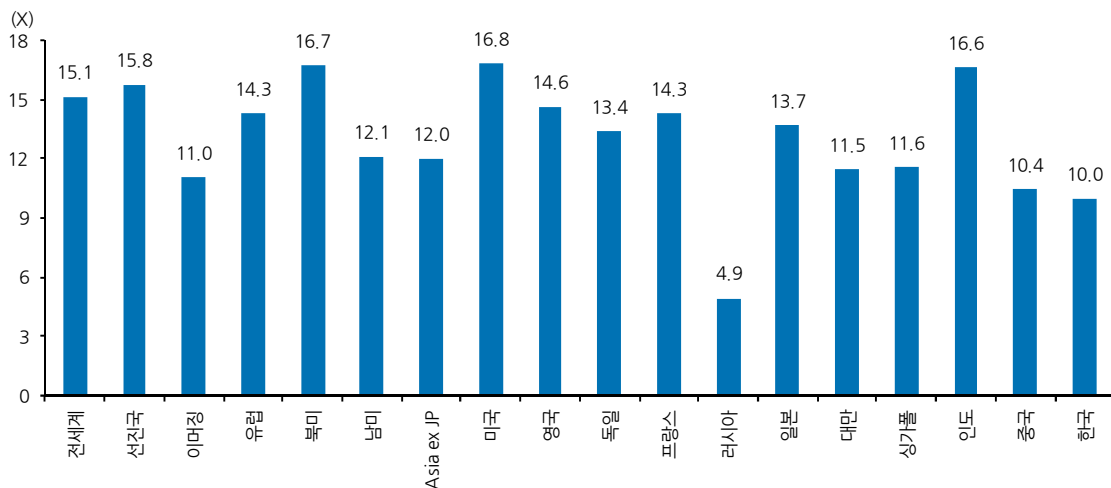
차트 Point: (3) Valuation & Momentum

Quant 엄동찬 • 02)6923-7314 • dongchan@ligstock.com

업종별 영업이익 변화율 및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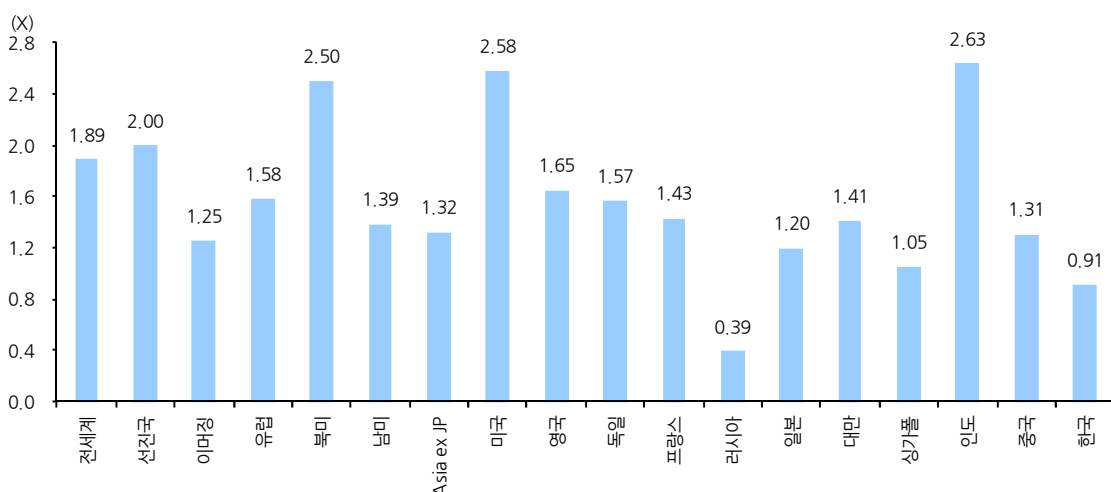
- 지난주 글로벌 이익 추정치는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가 모두 하향 조정되었고, 선진국의 이익 추정치가 더욱 큰 폭으로 하향 조정
-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 이익추정치이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 폭이 가장 적었음

글로벌 주요국 PER(12개월 Fwd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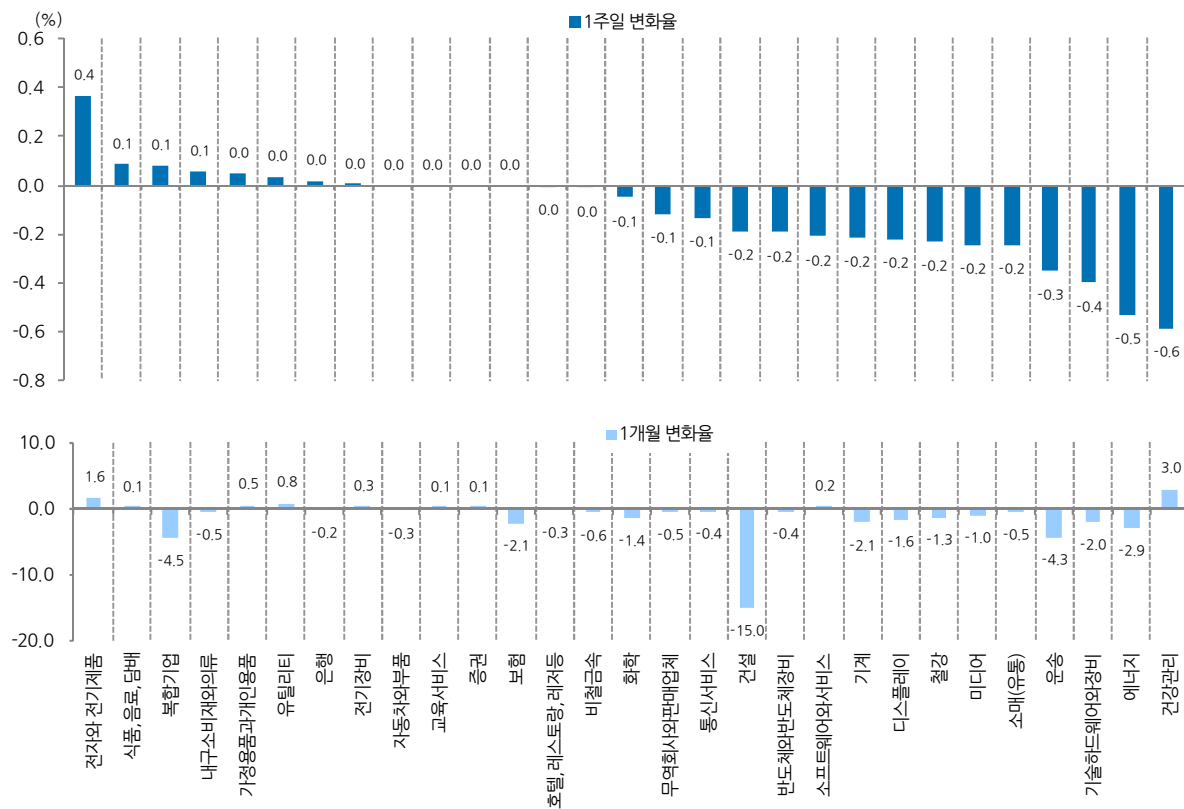
글로벌 주요국 PBR(12개월 Fwd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연말을 앞두고 실적 추정치 변동이 별로 크지 않았던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업종이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
- LG전자와 중소형 IT 기업들 실적이 상향 조정되며 전기전자 업종 이익추정치가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헬스케어 업종은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

업종별 2015년 영업이익 변화율



자료: WISEfn,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조정 상위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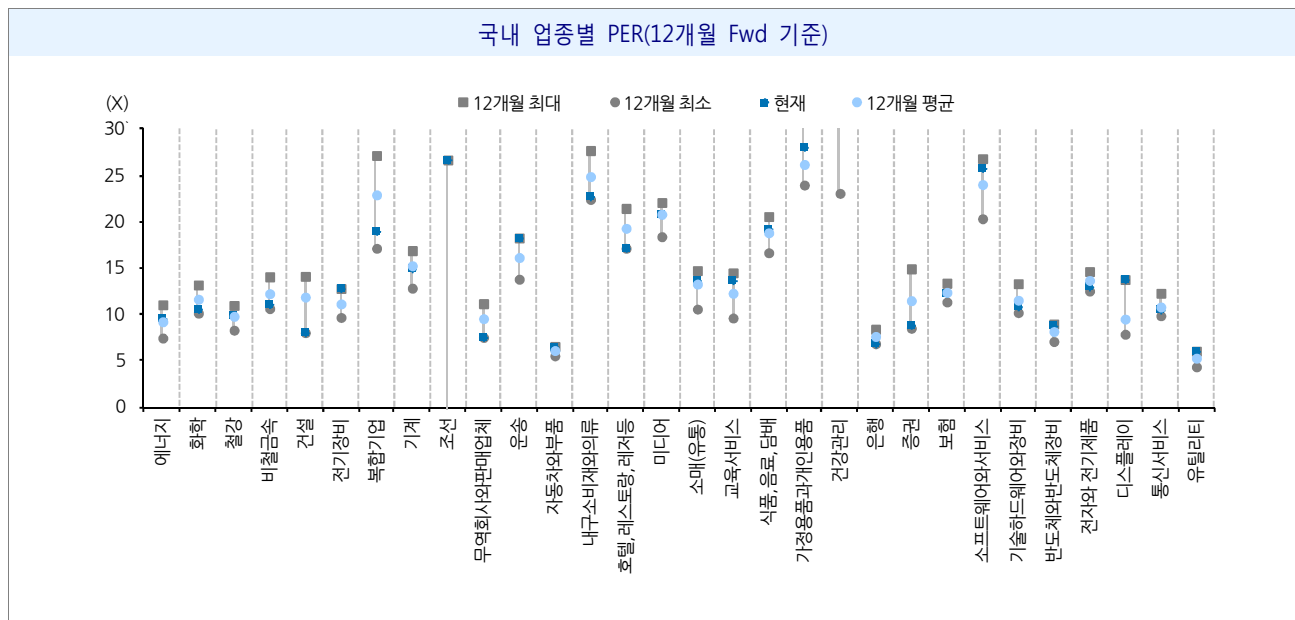
코드	종목	시가총액 (억원)	영업이익(억원, %chg)			12개월 Fwd	
			2015년	1주일 변화율	1개월 변화율	PER(X)	PBR(X)
A063080	게임빌	4,722	10	21.7	27.8	13.5	1.9
A003920	남양유업	5,299	186	17.7	7.3	33.1	0.7
A002170	삼양통상	1,430	122	8.0	8.0	10.1	n/a
A049960	셀바이오텍	5,264	193	5.2	5.9	25.4	4.9
A004690	삼천리	4,278	1,017	3.5	10.0	8.4	0.3
A011930	신성솔라에너지	1,548	68	2.5	2.5	17.0	2.2
A086980	쇼박스	4,420	118	2.3	10.5	31.5	3.3
A005990	매일유업	5,883	304	1.9	-0.3	19.5	1.4
A115390	락앤락	6,683	294	1.5	1.5	22.0	1.0
A051500	CJ프레시웨이	9,806	361	0.7	-2.2	32.5	4.6
A003550	LG	126,312	12,859	0.6	1.2	11.3	0.9
A078000	텔코웨어	1,431	84	0.6	0.6	17.2	0.8
A005500	삼진제약	3,204	367	0.5	0.5	11.5	1.7
A011780	금호석유	16,666	2,102	0.5	0.6	10.2	0.9
A066570	LG전자	87,224	11,299	0.5	1.8	14.5	0.8
A078340	컴투스	14,307	1,613	0.3	0.3	9.0	2.3
A011790	SKC	12,437	2,283	0.3	0.3	8.4	0.8
A069260	휴켄스	6,377	475	0.2	-12.5	13.5	1.2

자료: WiseFn,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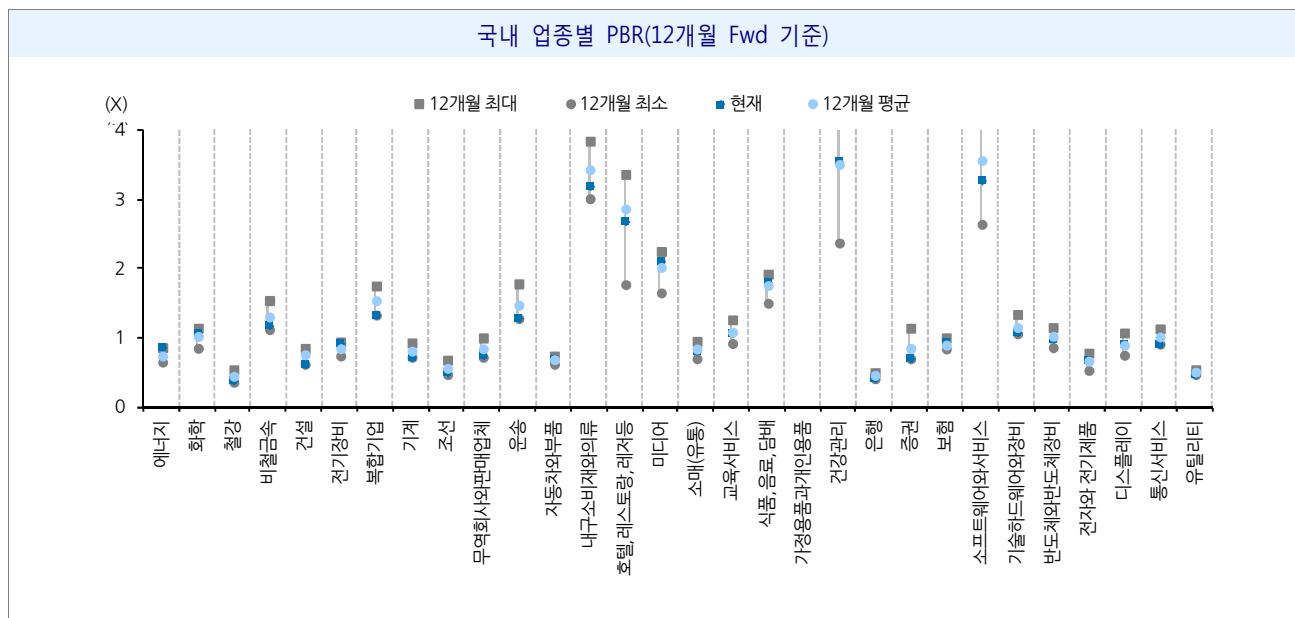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조정 상위 종목

코드	종목	시가총액 (억원)	영업이익(억원, %chg)			12개월 Fwd	
			2015년	1주일 변화율	1개월 변화율	PER(X)	PBR(X)
A052220	iMBC	1,073	18	-28.0	-28.0	21.9	2.0
A101240	씨큐브	755	40	-11.1	-11.1	18.5	n/a
A054780	키이스트	2,692	77	-9.8	-23.6	32.4	5.0
A138070	신진에스엠	1,624	79	-6.9	-17.4	12.6	2.2
A067000	조이시티	3,276	76	-6.5	-6.5	11.3	3.5
A128940	한미약품	68,138	1,530	-5.3	56.1	48.2	9.2
A007660	이수페타시스	1,878	279	-4.8	-24.0	6.7	0.8
A090460	비에이치	866	141	-4.5	-4.5	5.0	0.6
A005360	모나미	843	112	-4.0	-4.0	9.6	1.1
A052330	코텍	1,869	274	-3.7	-3.7	5.2	0.7
A089850	유비벨록스	1,064	53	-3.7	-18.7	10.8	1.2
A117930	한진해운	8,842	2,298	-3.3	-14.5	-14.4	0.9
A095660	네오위즈게임즈	3,265	258	-2.5	-1.8	10.4	1.0
A008730	울촌화학	3,001	250	-2.2	-2.2	14.3	n/a
A010950	S-Oil	92,093	10,752	-1.7	-4.5	11.6	1.5
A001740	SK네트웍스	14,097	2,052	-1.5	-2.3	12.2	0.5
A007700	F&F	2,541	228	-1.5	-1.7	10.4	1.1
A036570	엔씨소프트	46,928	2,477	-1.3	-2.1	17.3	2.6

자료: WiseFn,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WISEfn,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 생활용품 업종의 PBR은 4배 이상

자료: WISEfn,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목표주가 컨센서스 상향을 상위 종목

코드	종목	시가총액 (억원)	목표주가(원, %)			12개월 Fwd	
			컨센서스	1주일 변화율	상승여력	PER(X)	PBR(X)
A069260	휴켄스	6,377	29,500	39.2	89.1	14.0	1.3
A138930	BNK금융지주	26,824	20,688	32.0	151.4	5.9	0.6
A011200	현대상선	9,025	7,000	30.8	72.8	N/A	1.6
A028050	삼성엔지니어링	5,840	25,743	23.4	76.3	N/A	0.8
A001740	SK네트웍스	14,097	10,667	21.4	87.8	12.6	0.7
A020560	아시아나항공	9,141	6,962	21.1	48.6	12.5	0.9
A003490	대한항공	20,577	45,088	19.0	59.6	9.6	0.9
A117930	한진해운	8,842	6,014	17.9	66.8	91.8	0.8
A114090	GKL	15,804	40,667	16.5	59.2	15.1	3.5
A096530	씨젠	9,313	56,143	15.3	58.1	n/a	n/a
A008770	호텔신라	32,183	173,714	14.6	111.8	23.5	n/a
A095660	네오위즈게임즈	3,265	26,000	13.0	74.5	11.6	1.2
A005180	빙그레	6,916	91,375	11.4	30.2	15.5	1.2
A111770	영원무역	19,608	75,545	10.9	70.7	11.5	1.5
A037620	미래에셋증권	22,457	28,839	10.9	46.8	9.5	0.6
A028670	팬오션	18,302	6,200	10.7	77.7	n/a	n/a
A082740	두산엔진	2,297	6,250	10.1	89.1	19.5	0.4
A000640	동아쏘시오홀딩스	7,630	230,000	8.7	40.7	59.1	1.8

자료: Fnguide,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목표주가 컨센서스 하향을 상위 종목

코드	종목	시가총액 (억원)	목표주가(원, %)			12개월 Fwd	
			컨센서스	1주일 변화율	상승여력	PER(X)	PBR(X)
A004170	신세계	23,678	275,000	-16.4	14.3	11.7	0.8
A051370	인터플렉스	1,663	24,400	-11.3	140.4	17.6	0.7
A006260	LS	13,830	51,333	-10.7	19.5	9.9	0.5
A009830	한화케미칼	43,643	25,664	-8.8	-4.8	12.1	0.7
A004370	농심	25,456	394,273	-7.4	-5.8	20.3	1.2
A001680	대상	11,442	44,429	-6.7	33.6	14.0	1.4
A000150	두산	20,356	161,750	-6.5	69.0	14.9	0.9
A003670	포스코캠텍	7,797	15,333	-6.1	16.2	n/a	n/a
A006120	SK케미칼	17,152	94,157	-5.4	31.3	36.5	1.1
A066570	LG전자	87,224	61,571	-5.3	15.5	14.4	0.7
A002550	KB손해보험	17,250	34,930	-5.1	21.5	7.4	0.8
A001450	현대해상	32,139	37,829	-4.9	5.2	9.3	1.1
A012330	현대모비스	245,793	290,682	-4.3	15.1	7.3	0.9
A051900	LG생활건강	161,492	1,128,250	-4.1	9.1	28.2	6.1
A056190	에스에프에이	8,510	56,538	-4.0	19.3	13.3	1.4
A078930	GS	48,037	60,727	-4.0	17.5	7.7	0.7
A003550	LG	126,312	87,300	-3.6	19.3	11.2	0.9
A068270	셀트리온	88,484	105,714	-3.6	34.3	32.2	4.8

자료: Fnguide, LIG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LIG Research

리서치본부장
지기호/기술적분석
02)6923-7330
khchi@ligstock.com

투자전략팀	Analyst	내선번호	E-Mail
이코노미스트(총괄)	김유겸	6923-7332	yukyum@ligstock.com
투자전략	윤영교	6923-7352	skyhum00@ligstock.com
계량분석	염동찬	6923-7314	dongchan@ligstock.com
채권/크레딧	유선웅	6923-7353	carpelife@ligstock.com
시황	김예은	6923-7349	yekim@ligstock.com
경제 RA	문다솔	6923-7338	dasol.moon@ligstock.com
퀀트/채권 RA	한민우	6923-7331	mwh7733@ligstock.com

기업분석팀	Analyst	내선번호	E-Mail
정유/화학(총괄)	박영훈	6923-7317	houn0715@ligstock.com
철강/금속	김윤상	6923-7319	yoonsang.kim@ligstock.com
반도체/디스플레이	신현준	6923-7336	anthony0808@ligstock.com
스몰캡/통신서비스	김인필	6923-7351	ipkim01@ligstock.com
제약/바이오	이무진	6923-7343	c_in_c@ligstock.com
은행	은경완	6923-7322	kw.eun@ligstock.com
엔터테인먼트/레저/미디어	지안해	6923-7315	emalee89@ligstock.com
인터넷/게임	김성은	6923-7350	eunee714@ligstock.com
건설	김기룡	6923-7321	kirykim@ligstock.com
스몰캡	박상용	6923-7323	sean.park@ligstock.com
IT/스몰캡 RA	고의영	6923-7345	keuiy@ligstock.com
RA	강수민	6923-7362	soomin913@ligstock.com

▶ Complian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